

논평/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 정당화를 위한 서론

최 세 만 (충북대)

저자는 이 논문에서 연역과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방법에 대한 저자 자신의 정당화를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견해들을 토대로 정당화의 가능성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미래의 보다 본격적인 작업을 예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번째 부분에서 그는 연역의 정당화 문제가 귀납의 정당화 문제에 비해 소홀히 여겨져 왔음을 지적하고, 그 이유가 '정당화'의 관념에 관한 이해의 부적절성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논문의 두번째 부분에서 그는 정당화의 의미에 대한 보다 적절한 이해의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정당화의 여러 가능한 의미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단 '설득적 정당화'의 관념을 포기한다. 그리고 대안으로서 '비설득적 정당화'임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이 있는 특정한 '설명적 정당화'의 관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는 그러한 정당화의 관념을 소위 증명이론적 정당화의 모형에서 발견하며, 이러한 모형의 적용 및 적용상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M. 더밋의 논의 및 해결책이 이러한 정당화의 관념에 설득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즉 정당화해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직관주의 논리체계가 이러한 정당화의 관념에 따를 때,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체계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 논문의 세번째 부분은 연역적 추론에 의한 지식확장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흥미있는 논제이기도 하지만, 저자가 이 부분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연역적 방법의 정당성과 동시에 유용성을 입증하는 것이 정당화의 가장 깊은 단계라는 M. 더밋의 논지

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여기에서 저자는 '정보'의 가능한 두 의미를 구분하고 이 두 의미 중 우리의 지식의 현실에 보다 적합한 의미를 취할 때, 연역적 추론에 의한 지식의 확장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이 논문이 주로 M. 더밋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자신의 논의의 틀 속에서 문제의 맥락을 적절하게 짚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요소요소에서 예상되는 반론들에 대해서는 저자 자신의 논의를 통해 제거하거나 또는 검토와 전망만을 제시하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유연성과 솔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역의 정당화 문제에 중점을 두면서도, 귀납의 정당화 문제와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시사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평자는 이 논문 속에서 저자가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일반적 관심 이상의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으나 저자의 논문을 흥미있게 읽었으며,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선전하려는 저자의 의도는 성공한 것 같다. 그러나 동시에 저자가 이 논문 속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떨칠 수 없었으며, 그것을 다음과 같이 소박하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저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연역과 귀납은 知的인 논의의 불가결한 두 조건이다. 그러므로 이 두 방법에 대한 정당화 논의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두 방법에 의존해야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방법은 지성적 논의의 총체적 조건 또는 한계로서 기능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총체적 한계는 철학적인 당혹(또는 경이)의 근원이 된다. 즉 우리의 삶이나 삶의 행위들 속에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 그것을 조망할 수 없음에 바로 그러한 당혹이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당혹에 기인하는 철학적 물음은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벗어나 절대 타자의 입장에 설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는 조건을 지니게 됨으로 어떤 의미에서 대책 없는 물음일 것이다. 연역과 귀납의 설득적 정당화에 물음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물음이며, 그러므로 이 논문 속에서 저자가 연역과 귀납에 대한 설득적 정당화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다른 종류의 정당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일견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자가 제시하는 정당화의 관념을 대할 때 거기에 가해진 세련되고 정교한 여

러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평자는 “왜 無가 아니고 존재인가?”라는 긴박한 물음에 대해, 라이프니츠가 ‘신이 최선의 세계를 선택했기 때문에’라고 느긋하게 대답할 때 느끼는 것과 유사한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저자도 물론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정당화의 관념을 정당화함으로써 — 즉 거기에 설득력을 부여함으로써 —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저자에 따를 때 새로운 정당화의 관념의 설득력은 다음 세가지 논지에 의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추론의 기본규칙은 그 규칙 자체가 결정한 논리상수의 의미에 의해 정당화됨으로써 자기정당화 된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정당화의 관념이 파국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위 조화의 요구를 비롯한 규제조건이 필요한데, 이 조건들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연역적 추리도 지식을 확장하며 여기에 기인하는 유용성이 연역의 정당화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들은 실용주의와 상식에 호소하고 있으며, 따라서 보편적 관점에서 볼 때 가능한 다른 입장들을 배제하는 데서 성립된다. “규정은 부정이다”라는 논지를 믿는 사람에게 스스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비모순적 체계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모순을 피하기 위한 규제조건을 동원하는 것은 선결조건요구의 오류가 아닌가?(이 부분에서 저자는 더밋의 ‘보다 포괄적인 의미론적 원칙’이 그러한 규제조건을 정당화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론적 원칙은 논쟁의 가능성 속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적어도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은 저자도 인정하는 것 같다.) 그리고 유용성이 연역의 정당화의 일부가 된다는 발상은 설득적 정당화의 요구가 위의 두 논지에 의해 완전히 잠재워졌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는 발상인 것 같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당화의 관념은 “나는 왜 죽어야 하는가?”라는 실존적 물음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법칙에 입각한 죽음에 대한 설명이나 죽음이 삶 속에서 지닐 수 있는 유용한 역할에 대한 논의로 대답할 경우와 유사한 정당화의 관념으로 여겨지며, 그래서 설득적 정당화의 요구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논의가 그러한 요구를 잠재우기는 커녕, 오히려 근원적인 철학적 물음을 억압하는 마약적인 논의로 비쳐질 것이다.

여기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찌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돌아올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또한 평자가 항상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평자는 설득적 정당화의 요구를 설명적 정당화로 전환시키는 지적 전통, 즉 한계에 대한 물음을 한계내에서 대답하려는 전통은 서양철학 속에 뿌리 깊은 것이나, 이러한 전통에 저항해 온 철학자들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그러한 철학자들은 불가능한 물음에 고집스럽게 맞선 결과 설명적 정당화와는 다른 철학적 실행의 길을 걸음으로써 설득적 정당화의 물음에 대처했다는 사실만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저자의 논문에 대한 평자의 이러한 견해는 물론 저자와의 철학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아마도 저자는 이 논문에서 자신이 기울인 노력을 충분히 정당화 할 수 있는 철학관을 지니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논문 속에는 단지 그 흔적밖에 발견할 수 없었음이 아쉽게 느껴진다. 더구나 이 논문이 '정당화를 위한 서설'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볼 때에는 그러한 아쉬움이 더욱 커진다.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저자가 이 논문 속에서 새로운 정당화의 관념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철학적 성과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의 철학적 성과인지에 대해 의문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이 논문이 지적 흥미를 불러 일으킬지언정 철학적 흥미를 불러 일으킬 듯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